

창업자의 자기효능감 및 실패 경험이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에 미치는 영향

권일숙¹, 설원식^{2*}

¹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전공 조교수, ²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Failure Experience on the Needs of Start-up Support Services

Il-Sook Kwon¹, Won-Sik Sul^{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Business and Economics, Hannam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와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서울과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86개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외부 변화기에 창업준을 제공하려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경험을 가진 창업자는 대학 외부에 위치한 고객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여성 보다는 남성 창업자가 창업지원에 대한 니즈(needs)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업종이나 성장단계와 같은 창업기업 차원의 특성 뿐 아니라 창업자의 심리적 상태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된 창업지원서비스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자기효능감, 창업실패 경험, 심리적 특성, 창업지원정책, 창업지원서비스

Abstract In this study, we hypothesized that the needs for start-up support services may vary depending on the fou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fficacy or his attitude toward uncertainty. To verify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founders of 86 companies located in Business Incubators at Seoul and Daejeon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self-efficacy of the founder, the more active he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accept the start-up support service, which aims to provide start-up zones to busy areas outside the university. While the founder, who has experienced failure in the past, responded positively to attracting customers located outside the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hypothesis and suggest that differentiated start-up support services should be designed by including not only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start-up companies, such as industries and growth stages, but also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rt-ups in important consideration.

Key Words : Self-Efficacy, Failure Experien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Support Services

1. 서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새로 이 개시함을 의미한다.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성과 성장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기술, 지식에 대한 전문성

*Corresponding Author : Won-Sik Sul (wssul@sookmyung.ac.kr)

을 기반으로 한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1]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목적을 넘어 경제성장애의 기여라는 또 다른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2], 대학발 창업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대학발 창업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에 기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은 심각한 청년층 실업문제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발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창업교육과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사업, 실험실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학발 창업은 대개 기술, 자금, 인력과 같은 경영자원과 사업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당연한 사실이다. 반면, 창업자나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니즈(needs)는 상이할 수 있다. 한 예로 임상준·김장권(2011)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및 기대충족정도가 다를 것을 제기한 바 있다[3].

기존 대학발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반면, 실질적인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대학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대학발 창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이며, 입주기업들은 대개 창업 초기인 경우가 많아 창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창업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자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나 실패 경험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영역으로 학술적으로 나름의 의의를 지니며, 연구결과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학발 창업지원서비스 설계라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가설을 도출한다. 표본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서술하며,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5장에 정리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 도출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창업자의 의지이다. Krueger(2000)는 창업의지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업무에 대한 통제와 창업실패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꼽고 있으며[4], Ferreira et al.(2012)은 창업의지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통제에 대한 내적 인식, 위험에 대한 태도, 자기 신뢰, 성취욕구,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혁신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5].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 중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해 본다.

먼저,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 상황에서 주어질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과업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6]. Boyd & Vozikis(1994)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위험을 감내하며 주어질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유봉호(2013)는 창업자 심리특성인 위험감수성, 친취성, 내적 통제소재 및 내재적 동기가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고, 4가지 요인이 결국 창업자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임을 제기하였다[8]. 허환호·변종규(2014)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편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창업시도 실패에 따른 두려움이 적음을 발견했으며[9], 김경은·주병철(2018)의 연구에서도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0]. 또한, 이준성·송인암(2019)은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을 6개 구성인자 즉 기업가정신,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환경변화 이해도, 제품차별화 역량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역량으로 구분한 후,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과 관련을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구성인자

간에는 경로가 존재하고 경로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면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11].

다음으로, 창업에 있어 불확실성,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m & Redding(1993)은 창업 여부의 결정에는 성공에 따른 신분상승 기회 뿐 아니라 실패로 인한 체면손상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2].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으며[13], 정대용·김재형(2016) 역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4]. 기업가정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가 창업실패 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재형(2018) 또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으며, 나아가 창업실패 두려움은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일부와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15].

창업실패를 직접 경험한 창업자 역시 재창업을 꺼리게 되며, 창업실패 경험은 또한 재창업 후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하규수·윤백중(2011)은 실패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했으며, 창업에 대한 실패 인식이 높을 때에는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더라도 창업의도가 감소한다고 언급하였다[16]. 과거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상문·이미순(2019)은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17]. 이들은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실패창업경험은 고용과 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나미·이종선·김동수(2020)는 이전 실패 경험에서 많이 학습한 기업가일수록 실제 재창업으로 이어지며, 재창업 교육에서 많이 학습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여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재창업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8]. 결국 과거 실패했던 창업자는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의도나 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을 분석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이나 성장단계 등 창업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3, 19]. 유사한 맥락에서 창업기업 뿐 아니라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현재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기효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하였다.

<가설1>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1> 자기효능감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2> 창업실패 경험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표본 및 연구방법론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 지역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준 입주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 설계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9년 11월~2020년 3월이며 표본 수는 86개이다.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Group (n=86)		Frequency	(%)
Gender	Man	50	58.1
	Woman	36	41.9
Age	under 25	17	19.8
	25~29	36	41.9
	30~39	20	23.3
	40~49	9	10.5
	over 50	4	4.7

Level of education	college student	32	37.2
	college graduate	34	39.5
	master's degree student	9	10.5
	master's degree	4	4.7
	Ph.D. student	0	0.0
	Ph.D.	7	8.1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text{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 = \alpha + \beta_1 \text{자 기효능감} + \beta_2 \text{창업실패 경험} + \beta_3 \text{기업성과} + \beta_4 \text{산 업성과} + \beta_5 \text{기업업력} + \beta_6 \text{성별} + \beta_7 \text{연령} + \epsilon$$

식(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서 비스에 대한 니즈(need)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는 ‘외 부고객 유치’와 ‘외부창업존 제공’ 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들 창업지원서비스는 최근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 업 지원을 위해 고려하는 중요한 지원수단이다. 독립변 수로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 여부를 선택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자기 확신 및 자신감을 대표하는 변수로 창업지원에 대한 니즈도 높 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창업실패 경험은 재창업 결정 과 재창업 후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1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과 거의 실패원인에 따라 창업지원에 대한 니즈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통제변수로는 현재와 향후 기업성과 및 산업성과에 대한 인식, 창업팀의 기 업업력, 창업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를 포함시켰다. 설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 령다’, ‘매우 그렇다’에 대해 각각 -2, -1, 0, 1, 2 점을 부여하였다.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Dependent variables: needs of start-up support services	Attracting external customers	Supporting for customers outside the university to visit business incubator
	Providing external start-up zone	Providing start-up zones using shopping malls in the downtown area
Independent variables: fou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the degree of confidence a founder has in his or her start-up
	Failure Experience	Experience of past start-up failures=1, otherwise=0
Control variables	Firm performance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firm performance to which the

		current and future start-ups belong
Industry performance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industrial performance to which the current and future start-ups belong
Firm's age		measuring the age of a firm
Founder's gender		man=1, woman=0
Founder's age		measuring the age of a founder

4.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는 독립변수의 하나인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Table 3.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on the founder's self-efficacy

Factor: Founder's self-efficacy	Factor loading
When I decided to start my own business, I was confident that I would do well after I started my own business.	0.858
When I decided to start my own business, I thought it would be a big success after I started my own business.	0.858
% = 73.652 Eigenvalue=1.368 Cronbach's α = 0.623	
KMO = 0.502 Bartlett's x2 = 21.151*** (p < 0.000)	

식 (1)에 제시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독립변수의 다중공 선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Self-efficacy	2. Failure Experience	3. Firm performance	4. Industry performance	5. Firm's age	6. Founder's gender	7. Founder's age	VIF
Mean	0.000	1.670	0.000	0.000	2.200	1.419		
S.D.	1.000	0.519	1.000	1.000	0.992	0.496		
1.	1.000							1.567
2.	-0.241 *	1.000						1.299
3.	0.330 **	-0.022	1.000					1.442
4.	0.247 *	-0.332 **	0.449 **	1.000				1.575
5.	0.138	-0.148	-0.099	-0.195	1.000			1.133
6.	-0.324 **	-0.104	0.021	0.129	-0.051	1.000		1.273
7.	-0.278 **	0.165	-0.232 *	-0.122	0.005	-0.129	1.000	1.186

Notes: * p < 0.10; ** p < 0.05; *** p < 0.01.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외부고객 유치라는 창업지원서비스를 종속 변수로 선택한 모형 (1)에서는 창업실패 경험이 유의한 정(+)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화가에 외부 창업존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를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 (2)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수가 유의한 정(+)의 계수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자기 확신과 적극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외부고객 유치 보다는 대학 외부의 변화가로의 상가 입주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외부 고객의 유치라는 지원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들은 변화가에 위치한 외부창업존이 비록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고객이 많아 비용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했던 창업자는 대개 시장과 고객창출에 실패했던 사례가 많아 외부고객의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기한 가설을 지지하며,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자신들이 제공받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통계변수 중에서는 기업성고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여성 보다는 남성이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가 젊을수록 외부 창업존 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니즈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Table 5. Main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Model (1): dependent variable=Attracting external customers	Model (2): dependent variable=Providing external start-up zone
Intercept	2.869 *** (4.29)	3.109 *** (5.77)
Self-efficacy	0.072 (0.56)	0.234 ** (2.28)
Failure Experience	0.582 ** (2.60)	0.178 (0.98)
Firm performance	-0.225 * (-1.84)	-0.207 ** (-2.10)
Industry performance	-0.004 (-0.03)	-0.089 (-0.86)
Firm's age	-0.022 (-0.20)	0.115 (1.31)
Founder's gender	0.425 * (1.83)	0.701 *** (3.76)

Founder's age	-0.172 (-1.65)	-0.197 ** (-2.34)
Number of sample	86	86
Adjusted R ²	0.094	0.227
F-value	2.256 **	4.565 ***

Notes: t-statistics are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5. 결론

최근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업종이나 성장단계와 같은 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3, 19],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과거의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86개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외부의 변화가에 창업존을 제공하겠다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경험을 가진 창업자는 대학 외부에 위치한 고객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제공받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을 결정할 때 창업자의 심리적 상태 역시 고려요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 나름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외부고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존 교내의 창업보육센터를 고수할 게 아니라 외부의 변화가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부 변화가의 이용은 기존 기업의 창업성공에 자주 이용되는 전략이지만 대학발 창업에 역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융합적 접근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나아가 범국가적인 차별화된 창업지원정책을 결

정할 때 심리적 상태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과 대전의 일부 대학으로 표본을 한정된 점이다. 그리고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이 극복되길 바란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Sanhak Foundation(KSF) in 2019.

REFERENCES

- [1] S. N. Jo & J. H. Han. (2011). Case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Local Start-up Firm: Focused on Venturing.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4(2), 15-24.
- [2] R. E. Hoskisson, J. Covin, H. W. Volberda & R. A. Johnson. (2011). Revitalizing Entrepreneurship: The Search for New Research Opportuniti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8(6), 1141-1168.
- [3] S. Limb & C. Kim. (2011). Effectiveness of Business Incubators' Tenants Suppor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1), 390-400.
- [4] N. F. Krueger. (2003). The Cognitive Infrastructure of Opportunity Recogni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5-23.
- [5] J. J. Ferreira, M. L. Raposo, R. G. Rodrigues, A. Dinis & A. Paco. (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440.
- [6] A. Bandur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 General Learning Press.
- [7] N. G. Boyd & G. S. Voziki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8] B. Yoo. (2013).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9] H. Ha & C. Byun. (2014). The Effects of Positive Cognitive Bias on Attitude toward Success(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145-153.
- [10] K. Kim & B. Ju. (2018). The Effects on the Motivation Factor of Young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ear of Start-up Failur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1(5), 1621-1640.
- [11] J. Lee & I. Song.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ounder's Self-Efficacy on the Sales of the Founding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61-78.
- [12] S. Tam & S. G. Redding. (1993). The Impact of Colonialism on the Formation of an Entrepreneurial Society in Hong Kong. in S. Birley & I. C. MacMillan Eds. *Entrepreneurship Research: Global Perspectives*. North Holland : Elsevier. 158-176.
- [13] S. Kim, J. Han & S. Lee. (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 [14] D. Chung & J. Kim. (2016). The Effect of Perceived Threat for Entrepreneurial Failur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ed by Fear on Busines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4), 571-590.
- [15] J. Kim. (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ear on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73-82.
- [16] K. Ha & B. Yoon. (2011).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8), 3406-3414.
- [17] S. Park & M. Lee. (2019). Success and Fail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New Venture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Firm 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4), 51-62.
- [18] N. Kim, J. Lee & D. Kim. (202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Failure Experience and Re-education on Subsequent Ventur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33-45.

- [19] K. Jung. (2020). Effectiveness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olicy of Early Start-ups: Moderating Effect of the Industry and Growth Stage of the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59-70.

권 일 숙(Il-Sook Kwon)

장학원



- 2009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사)
- 201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석사)
- 2014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영, 국제재무
- E-Mail : ilsook@hnu.kr

설 원 식(Won-Sik Sul)

장학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영, 국제재무, 성과분석, 산학협력
- E-Mail : wssul@sookmyung.ac.kr